




##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가치 안전, 그리고 안전인



두 아이에 아버지이자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한 김태현 대리는 부산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산업보건을 전공하고 1998년, 지금 이곳 대우인터내셔널에 보건관리자로 입사하였다. 2003년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04년 대우인터내셔널이 이곳 녹산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배기설비와 자동화 설비에 많은 투자로 공정 내 위험요소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곤 했다. 이러한 사고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고자 회전체의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호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유기화합물 취급 공정의 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철저한 배기와 보호구 착용을 통해 2차, 3차에 걸쳐 흡입을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휴먼에러에 의한 협착, 추락 등 재래형 재해가 발생했던 터라 근로자의 안전 감수성을 높이는 일이 시급했다. 우선 각 공정의 책임자인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작업을 통제하는 관리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도모하였고, 이를 통해 일선 근로자들에게 교육 효과를 파급시키는 전달식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각 현장에 맞는 교육 내용으로 관리감독자는 물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점차 작은 안전사고들은 줄어들기 시작해 2007년부터 무재해 사업장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올 6월이면 벌써 무재해 3배수 달성을 이루게 되며 이런 값진 결실은 최고경영자의 인전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안전을 우선하는 경영방침, 각 공정의 관리감독자를 비롯한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작업장, 사고 없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자 했던 의지가 확고했기에 가능했다고 그는 설명한다.

이러한 좋은 결실이 있기까지에는 그를 비롯한 환경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과 팀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안전관리자에게 있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바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일 것이다. 그것도 평소 함께 근무하던 근로자가 아까운 생명을 잃거나 평생 짊어지고 가야할 장애가 남는 중대재해 발생은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가족, 회사에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손실을 가져다준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관리자는 그 가족에 못지않은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도 그런 여러 번의 경험으로 한 때는 일을 그만둘까도 고민해 보았지만 누군가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열정을 갖고 해야 한다면 그 일만큼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보람된 일이며 그 일에 다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를 지금까지 이 일에 매진하도록 했던 원동력이 되었다. 경제 한파로 여기저기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자칫하면 기업에서도 안전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지기 쉬운 요즘, 그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은 경제적 이윤이라는 논리로 가능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일선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관리자들이 더욱 더 사명감을 갖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길 기원한다. 

취재 | 임재근 기자